

# “지카 발생국 입국자 명단 지자체에 통보해야”

### ‘나홀만의 신고’ 초기대응 허점... 전남도, 정부에 건의 정부, 의료기관 정보공유 강화·스마트 검역망 구축키로

국내 첫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최초 병원을 방문하고 나흘 뒤 보건당국에 신고되는 등 지카 바이러스 초기대응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광주일보 23일자 6면)과 관련, 전남도가 발생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명단을 정부가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바이러스 유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고, 당장도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는 주요 42개국 입국자에 대한 명단을 질병관리본부가 확보해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 등 개정 건의안’을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공감해 도내 22개 시군 보건소장 회의에서 뜻을 모았다”며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 사용했던 DUR(의약품안전서비스)을 이용해 발생국에서의 입국자 명단을 공유하면 지역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신고 및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UR’ 프로그램은 메르스 접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정보공유가 미흡해 방역망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자 구축했다.

앞서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확진 환자인 이모(43)씨는 16일 발열 등 증세를 보

여 지난 18일 광양의 한 의원을 방문했지만 지역 보건소 등에 즉각 신고되지 않다가 지난 21일 재차 의원을 방문하고 나서야 보건당국에 신고됐다.

특히 일본의 역학조사 결과 이씨가 18일 의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진료 기록에 체온이 37.2도와 37.6도로 기록돼 있고, 근육통 증상도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현재 ‘전산 시스템’ 또는 ‘팩스’로 보고하게 돼 있는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를 ‘전산 시스템’ 신고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팩스’로 신고하면 밤이나 직원이 없는 사이 즉각적으로 신고·보고체계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당장도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바이러스 유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카 바이러스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올 연말까지 ‘스마트 검역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감염병 발생국을 방문한 뒤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더라도 당국이 항공사 탑승객 정보시스템 활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입국자에게 귀국 후 감염병 대처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메르스 사태처럼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가 미흡해 방역망이 뚫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협회를 중심으로 정보공유도 강화키로 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 천변 지카바이러스 방역 국내 첫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 북구보건소 방역단이 23일 임동 인근 광주천변 일대에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1 | 해질 18:47 | 달뜨기 19:31 | 달지기 06:53

### 아침·저녁 쌀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2/14	보성	구름맑음	0/13
목포	맑음	3/9	순천	구름맑음	3/15
여수	구름맑음	4/12	영광	맑음	1/9
나주	맑음	0/14	진도	맑음	2/10
완도	맑음	3/12	전주	맑음	1/13
구례	구름맑음	-1/15	군산	맑음	1/10
강진	맑음	2/13	남원	맑음	-1/14
해남	맑음	1/12	홍산도	맑음	4/7
장성	맑음	0/12			



### 바다 날씨

지역	암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암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0~2.5
남부	암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1.5~3.0
남해	암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서부	면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1.5~3.0

###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보통
☀️	자외선
🌧️	낮음
🌊	파부질환

### 주간 날씨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	☀️	☀️	☀️	☀️	☀️	☀️
1/14	1/13	1/15	3/16	5/18	6/18	7/15

##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환자 퇴원

국내 첫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23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전남도와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대병원에 입원한 이모(43)씨가 23일 오전 완치 판정을 받았다. 광양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날 9일까지 22일간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 업무차 체류했으며, 귀국한 지 5일 후인 지난 16일 발열 증세가 나타나 지난 18일과 21일 광양의 한 병원을 찾았고, 22일 유전자 검사(PCR)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병원에서 전반적인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퇴원 조치를 했다”며 “이씨에게 ‘지카바이

러스 환자 퇴원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1주일 후 전남대병원 외래진료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의료진과 광양보건소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합병증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환자를 통한 지역사회 추가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씨는 귀국 이후 현열을 하지 않았고, 모기에 물리지도 않았다”며 “모기 활동기간이 아니어서 사람-모기-사람 경로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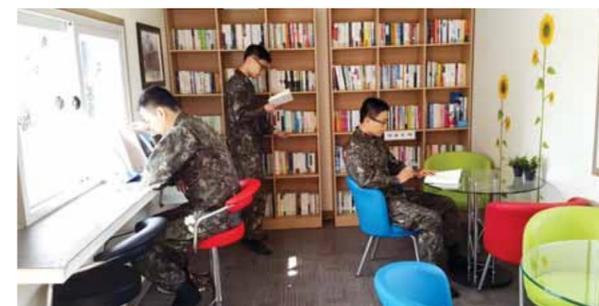
## “영산강환경청, 남영전구 수은 누출 부실 수습”

### 광주환경연합, 후속조치 촉구 1인시위 돌입키로

광주 하남산단 남영전구 수은램프 제조 설비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수은누출’사고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부실한 사고 수습과 국민을 기만하는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 자문회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남영전구 광주공장 주변 2개 지점에서 측정된 대기중 수은 농도는 13.13ng/m, 21.97ng/m으로 전국의 월평균 농도(0.37~4.78ng/m)의 20배~40배에 달했다. 현재까지도 대기 중 수은농도가 평균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남영전구 인근 주민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수은중독여부 검사 결과, 소변 중 수은농도가 73명 중 17명이 영산강환경청이 제시한 기준치(0.53µg/l)보다 높았음에도 전체 조사결과를 평균값으로 계산해 ‘한국인 평균 이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와 제3자에 대한 피해 조사 재실시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24일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



## 책 읽는 육군 31사단

### 광주 3곳·전남 18곳 독서카페 운영...오늘 담양서 개관식

항토사단인 육군 31사단이 해안소초·레이더기지 등 격오지 부대에 독서카페를 운영한다.

‘군대=인생의 종합대학’이라고 일컫는 ‘대학’에 도서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책 읽는 병영문화’를 선포한 것이다.

31사단은 24일 담양 녹천대대에서 21개 독서카페의 통합 개관식을 연다.

광주지역 부대 3곳, 전남 18곳이다. 총 21개 독서카페 가운데 이날 8곳이 문을 열고, 이어 4월에 11곳, 5월과 6월에 각각 1곳이 연이어 개관한다.

독서카페는 장병 10여 명이 동시에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18㎡(3m×6m) 공간에 냉·난방시설과 휴식공간이 갖춰진

이동식 주책으로 지어졌다. 그 안에 빼곡히 넣은 국문문화진흥원에서 기증하고, 전남도립도서관과 여수시립도서관에서 이동문고를 운영해 책을 꾸준히 교체할 예정이다.

독서카페는 해안소초·레이더기지 등 격오지 부대 장병들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소식에 광주·전남의 여러 기관·기업·단체가 발 벗고 나섰다.

국민은행, 금호고속, 기아자동차, 광주여대, 광주은행, 대구·경북 군 선교연합회, 대신풍력, 송학건설, 씨월드고속웨리, 전남도청, 한화, 호반건설, 호원, KT&G 등이 독서카페 개선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새 주인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판션커피 영업중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 24억 현지 답사후 조정가  
H. 010-3119-6952

##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